

【서평】

루시 매덕스 편, 『미국학의 이론과 실제』  
김성곤 외 옮김(서울대출판부, 2006)

정 향 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 책은 편저로서 모두 17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학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하고 심도 깊은 글들을 내보이고 있는데, 각 글의 말미에는 그 글에 대한 논평까지 실려 있다. “종합선물세트”이니만큼 한꺼번에 숙독하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내게 가장 구미가 당기는 것들부터 차근히 읽어 나가기에 좋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않았던 과자까지도 한번 맛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선물세트라고 하겠다. 과자 각각에 대한 간단한 내용설명과 평가까지 덤으로 붙어있으니 더욱 좋다. 말하자면 그 구성에 있어 고르고 알차며 과자들의 질이 매우 높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원제(Locating American Studies: The Evolution of a Discipline)는 이 책을 편집하게 된 의도가 미국학의 그간의 흐름을 개관함으로써 현재 미국학이 서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옮긴이들이 붙인 제목(미국학의 이론과 실제)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제목 그대로 이 책은 미국학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들을 다룬 논문들과 구체적인 연구 사례에서 그것들을 적용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글들은 모두 미국내 미국학회(American Studies Association)의 학회지인 『아메리칸 쿼터리 American Quarterly』에 실렸던 것들로서, 시간적으로는 헨리 내시 스미스(Henry Nash Smith)의 1957년 글에서부터 스콧 왕(K. Schott Wong)의 1996년 글까지 망라하고 있어 각 논문들

을 읽으면서 미국학의 그간의 변천을 알 수 있다. 분과학문적 전통에서 보면 미국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렇듯이 이 편저 역시 미국문학 및 문학비평, 여기서 발전해 나온 문화연구, 그리고 미국역사학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주제별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학의 가능성, 방법론, 이론적 토대, 미국학의 역사 등을 논의한 글들이 있고, 두 번째는 역사학이나 문학비평의 틀 안에서 특정한 쟁점을 논의한 글들, 세 번째는 최근의 문화연구의 동향, 특히 다문화주의적 쟁점들을 다루는 글들이 있다. 물론 여성주의와 흑인민권운동으로부터 촉발된 글들, 그리고 대중문학과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여주는 글들은 이 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모두에 속한다고 해도 될 것이다. 여기서 굳이 글들의 범주를 말하는 것은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글들을 꼽아 보기 위해서이다. 그 글들은 단연 첫 번째 범주의 글들인데, 예를 들면, “‘미국학’은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헨리 내시 스미스),” “역사와 미국의 지식인: 유용한 과거의 활용(위렌 서스만),” “미국학에서의 신화와 상징(브루스 쿠클릭),” “문학과 역사학자(고든 켈리),” “‘패러다임 드라마’: 미국학운동의 문화 및 제도적 역사(진 와이즈),” “새로운 미국학을 위한 새로운 콘텍스트(로버트 버크호퍼),” “대중문화, 문화이론, 그리고 미국학(조지 립시츠),” “문화의 위치: 대토론 안에서의 미국학의 자리 매김(앨리스 케슬러-해리스)”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들이 특별히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인류학에서 출발해서 미국 문화를 공부하는 이로서 느끼고 있는 딜레마 때문이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미국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로서 나 역시도 미국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편으로, “미국학”이라는 것—주로 문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미국 내에서 1930년대 이후 발전되어온 일종의 미국의 국학(國學)—을 “발견”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왔다. 그런데 심경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 “미국학”에서 “인류학적 문화 개념”을 언급하고 또한 “미국문화 연구”가 “미국학”의 주요한 조류이기까지 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문화”를 언급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모두 인류학이나 인류학자가 연루되어야 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얼마간은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편저에서 보듯이 “미국학”의 몇몇 주요 학자들이 “문화 개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그것을 미국학에 적용하여 이론적 토대를 다질 것을 말하고 있어서 내가 가지는 다소 복잡한 심경이 단순히 개인적인 망상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 하다. 무엇보다도 미국내에서 미국학이 “국학”으로서 미국적 정신과 가치 등을 탐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면서 문학과 역사학 중심의 인문학이 미국적 경험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준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한편으로, 더 이상은 ‘문학’이나 ‘역사학’의 전통적인 경계 안에서 머물지 않고 ‘미국학’이라는 일종의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분과로서려는 노력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온 데서 이러한 난점이 오는 것 같다.

이 편저의 가장 앞에 실려 있는 헨리 내시 스미스의 역사적인 논문, “‘미국학’은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는 위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절실하게 제안하면서도 미국학의 출발의 전제, 그리하여 이후 세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전제를 그대로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스미스는 “미국문화를 하나의 총체로 삼은 연구조사가 기성의 어떠한 학문활동의 관계적 분야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학에서 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논의를 시작한다(p. 1). 마크 트웨인의 예를 통해서 그는 미국학의 고유한 분야 하나가 문학작품과 문화 간의 관계(p. 4)라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문화’라는 개념은 적어도 추상적으로는 ‘사회’와 ‘예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p. 14)”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학’의 방법 문제는 문화인류학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분야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같은 쪽)”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문화인류학이 미국과 같이 복잡한 사회를 연구하는 데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하고, 사회학적, 역사학적, 인류학적 방법, 그리고 예술연구의 방법을 필요한 대로 응용하는 “절도 있는 편의주의”를 주창한다(p. 15). 그러면서 “한 문화 속에 존재하는 동질성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개개의 사례에 의해서 구체화”되며, 문학

의 결작은 평범한 생활형태가 나타낼 수 없는 “확실한 문화표현”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p. 16).

이후 미국학의 발전, 그리고 이 편저에 실린 논문들은 어떤 점에서는 모두 헨리 내시 스미스 혹은 그가 대표하는 특정한 종류의 미국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브루스 쿠클릭의 논문 “미국학에서의 신화와 상징”은 바로 스미스 그리고 그를 이은 레오 막스(Leo Max)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면서 이 두 학자가 선두주자였던 소위 “신화-상징이론”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그의 비판의 핵심은 “낮은 차원,” 즉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과정과 “높은 차원,” 즉 신화와 상징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고서는 인문학이 제시하는 것은 “경험적 내용은 없는 일련의 회상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pp. 105-6). 쿠클릭의 논문에 대해서는 하워드 시걸이 논평을 하였는데, 쿠클릭 논문의 의의를 말하는 동시에 짤막하나마 매우 예리하게 신화-상징이론, 특히 레오 막스에 대해 독자적인 비평을 내놓고 있다.

아마도 인류학자가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문화적인 분석을 한다면 고든 켈리의 논문, “문학과 역사학자”에서 영감을 가장 많이 얻을 것 같다. 실은 켈리는 내가 미국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장 가깝게 말해주고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아주 많았던 논문이었다. 우선 켈리는 전반적으로 앞서 말한 쿠클릭의 논제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인류학적 문화개념을 차용하고, 19세기 말 아동소설의 경우에 자신의 논점을 적용하여 “상상적 문학작품을 역사적 증거물로 사용하는 문체(p. 117)”를 다룰 때 “좀 더 포괄적인 문화의 개념들(p. 122)”을 사용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미국학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논평자 샤론 오브라이언은 켈리가 정전문학과 작가 중심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서 대중문학, 그리고 독자 중심의 연구를 위한 지평을 열면서 미국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들을 예고했다고 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이후의 조류가 켈리의 문제의식을 얼마나 공

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미국학 전체의 역사를 개관하는 글로는 진 와이즈의 “패러다임 드라마’: 미국학운동의 문화 및 제도적 역사”와 앨리스 케슬러-해리스의 “문화의 위치: 대토론 안에서의 미국학의 자리 매김”을 들 수 있다. 와이즈는 “패러다임”의 비유를 통해서 미국학운동의 역사를 훑어보는데, 미국학에서 사회과학적, 특히 인류학적 틀을 어떻게 활용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일별하게 해준다. 케슬러-해리스의 논문은 1991년 미국학회의 연례 학술대회에서 학회장으로서 행한 기조연설로서 당시 미국학이 다문화주의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어떠한 국면에 놓여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통일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미국문화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p. 424)”이라는 지적은 비단 미국학 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문제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인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미국 바깥에서 미국을 경험하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미국’이라는 것은 그 통일성과 다양성의 양면으로 다가온다. 케슬러-해리스는 신화-상징학파로부터 전해져온 “미국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의 역사와 다문화주의라는 시대적 요청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다문화적 기도는 통일과 정체성과 목표의 추구를 분쇄하기는 커녕 그것을 강화하는 잠재력을 가진 것(p. 434)”이라고 호소한다.

나는 여기서 다시 문화 개념을 문제 삼고 싶다. 일견 다문화주의가 상정하고 있는 문화개념은 문화의 복수성을 강조하면서 단일한 실체로서의 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의 범위—하위집단이나, 국가적 사회냐의 문제—가 달라질 뿐,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서의 문화, 완결성과 경계가 있는 하나의 단위로서의 문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기 미국학이 기대었던 문화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문화 개념을 그대로 상정하고서는 케슬러-해리스가 소망하는 그러한 “민주적 문화”는 실제 현실에서는 가능할지라도 학문적 언어로서는 풀어낼 수가 없다. 다문화주

의가 제기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한편으로 그것이 갖는 인식론적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미국학의 방향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는 언제나 다문화적이지만 다문화주의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미국학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고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미국학의 종합선물세트,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서 온 이 선물세트를 골고루 맛보고 난 다음 나는 선물세트를 좀 다르게 꾸려보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미국에서, 그것도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 선물세트에 권위를 부여하면서도 역자들의 문제의식을 역시 공유하게 된다. 즉, “한국에서의 미국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는 한국에서의 미국학이 “한미관계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p. vi)”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미국학의 내용과 범위를 논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우리가 하는 미국학은 한미관계의 특수성에서 파생되는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지만, 미국 사회의 내부적 과정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쿠킨이 말하는 대로 미국 사회의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미국학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국가 사회로서의 미국과는 별개로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미국이라는 경험”에 대해서도 한국적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미국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이 편저는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논문부터 최근의 논문까지 시간 순으로 배열함으로써 독자들이 역사적인 흐름을 느끼도록 의도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어메리칸 퀴털리』에 원래 언제 출판되었는지 정확한 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원저에서는 있었으나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출판연도가 있었으면 미국학의 성장과 변천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